

스마트워치, 특허출원 급증추세

2014년 11월 136건으로 대폭 증가 ... 부가기능 서비스가 주류

스마트워치 시장에 삼성과 애플(Apple)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기업들이 잇달아 진출하면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11월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특허 출원이 2011년 11건, 2012년 10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143건, 2014년 11월 현재 136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한 특허 가운데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서비스 분야가 36.8%로 출원비율이 가장 높았다.

혈압, 맥박,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해 스트레스와 생체나이를 측정하는 헬스케어와 체지방을 측정해 운동을 지도하는 피트니스 기능, 골프스윙 측정, 칫솔질 가이드 등 손목에 착용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출원됐다.

스마트워치의 탈부착 기술과 스마트워치의 움직임 인식을 통한 문자·터치패드 입력, 음성인식을 통한 입력 기술 등도 30%를 차지했다.

저전력기술, 스마트워치 제어 등 웨어러블(Wearable) 기기의 최적화 기술이 22%, 디스플레이·배터리·메모리 등 하드웨어 기술이 11.2%로 나타났다.

스마트워치는 시간 확인 등 기존 시계 기능에서 진화해 전화, 메시지, 달력, 메모, 음악제어, 건강관리 등 스마트폰과 연동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주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를 의미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줄고 판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시장 성장이 둔화하면서 IT기업들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스마트워치가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특히, 건강관리 기능은 의료산업과도 연결되는 만큼 스마트워치의 성장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1/25>